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24위 복자

### 복자 문영인 비비안나

(1776-1801)



문영인은 한양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공녀로 뽑혔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그는 스무 살 무렵 병에 걸려 잠시 궁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때 한 노파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고,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를 알게 되어 1798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완쾌되어 다시 궁에 들어간 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천주님을 섬겼다. 그러나 끝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쫓겨나고 말았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문영인은 체포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한때 잠시 나약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신앙을 다시 고백하였다. 그는 사형 선고 직전에 그 일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포도청에서 첫 번째 진술 때는 천주교를 배척한다고 했지만, 돌이켜 보건대 입으로는 배척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곧 진술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독실히 믿어온 신앙인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는 동정녀로서 1801년 7월 2일,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 25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성서 주간

소리 주보 ▶



### 입당송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 제1독서

2사무 5,1-3

### 화답송

시편 122(121),1-2.4-5(◎1 참조)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제2독서

콜로 1,12-20

###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복음

루카 23,35L-43

###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살렘의 임금 멜키체덱



예루살렘의 고대 성읍 유적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豫表) 구실을 하는 인물이 여럿 등장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하고,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의 멜키체덱도 그렇습니다. 특히 멜키체덱은 창세 14장에서 “살렘 임금”으로 소개됩니다. 살렘의 원어는 [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신도시로 성장한 현재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이 여부스족에게서 정복한(2사무 5,6-12) 고대 성읍입니다(사진). 살렘의 어원은 대개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 같다고 보지만, 가나안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옛 가나안의 우가리트(현 시리아 해안가에 자리했던 옛 도시국가)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아버지 ‘엘’이 인간 여자 둘을 아내로 맞아 ‘샤하르’와 ‘샬림’이라는 아들을 얻는데, 그 가운데 ‘샬림’과 관련된다는 해석입니다.

멜키체덱이 등장하는 창세 14장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람과 함께 살다 소돔으로 분가한 뒤(13,12) 납치당하자, 아브람이 크도를라오메르와 그의 동맹군을 상대로 전쟁하여 롯을 구해냅니다. 그런 다음, 살렘의 임금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 멜키체덱과 만나게 됩니다.

멜키체덱의 이름 뜻은 보통 ‘정의의 임금’으로 풀이됩니다. 멜키체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 크도를라오메르 무리를 물리친 아브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 “축복은 …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7,7)이므로, 아브람

은 십일조를 바치며 이에 화답합니다. 이때 멜키체덱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가 훗날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정될 성찬례를 예표합니다. 옛 유다교 전통에서도 멜키체덱의 빵은 제사 빵을, 포도주는 제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창세기 라바」 43,6).

다만 멜키체덱은 이 대목에만 등장한 뒤 창세기에서 사라지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 언제 어디서 죽었다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듯,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7,3). 이렇게 레위 집안이 생겨나기도 전 영원한 사제로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훌륭한 예표가 됩니다(히브 7장; 시편 110,4 참조).

창세 14장은 멜키체덱과 아브람이 살렘에서 만난 일을 통해 하느님의 사제직이 아브람의 가나안 도착 전부터 예루살렘에 존재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아브람은 해당 대목에서 소돔 임금에게 제안받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재물에 욕심이 없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아브람에게 주님께서 후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계약을 체결하셨고(창세 15장),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17장). 이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시지만(마태 1,1), 아브람이 예루살렘에서 십일조를 바치며 공경한 멜키체덱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사제이자 임금이 되셨습니다. ☸



##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 (1)

「교회헌장」 제25항 전반부

「교회헌장」 제25항은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교도권)'에 관한 것으로, 그 처음에서 주교들의 임무 가운데 첫째가 “복음 선포”라고 밝힙니다. 성사 집전과 교리 전달이 중심이었던 중세의 직무 개념에서, 초기 교회로부터 내려온 교부들의 직무 이해로 회복하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흐름이 엿보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입니다. 또한 이미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신앙을 선포하고, 신앙(계시)의 내용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며, 하느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오류를 경계하고 물리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주교들의 신앙 선포에 대하여, 신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수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신자는 주교들을 “하느님의 보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존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 신자들은 그것에 “일치”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 일치를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religioso animi obsequio)” 주교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교들의 ‘판단’에 대한 신자들의 ‘마음의 종교적 순종’은 주교들의 ‘신앙 선언’과 관련된 ‘신앙의 순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주교인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한 신자들의 응답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황의 교도권은 ‘사도좌에서(ex cathedra)’ 선언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때도 신자들

은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야 합니다. 곧 교황의 최고 교도권에 대한 공손한 ‘인정’과 교황의 판단에 성실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개별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교회 최고 권위의 주체로서 무류성을 갖는 ‘전체 주교들의 복음 선포’에 대해 언급합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주교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더라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르침의 ‘대상’은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행위의 ‘형식’에 있어서 주교들이 일치된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해서 신자들은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야 한다.  
일반 알현에서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교황 레오 14세

공의회는 보편 교회의 스승이요 재판관으로서 주교들이 세계 공의회에 모여 신앙과 도덕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에게 부여된 무류성의 특권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신앙의 순종으로(fidei obsequio)” 주교들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어느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교실에서 여자아이가 남자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50명이 넘는 친구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자 창피한 듯 고개를 칠판 쪽으로 돌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 아이는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잠깐 가는 귀가 먹어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잘하던 받아쓰기도 틀리고, 가정통신문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날도 준비물을 챙겨 오지 못해서 불러 나간 듯합니다. 귀가 어두워 그런 걸 몰랐던 선생님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다그쳤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억울하고 무서웠을 아이의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억 속 아이는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은 것보다 친구들에게 받은 무시의 눈빛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ですよ.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치심을 잘 느끼는 편입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할 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비난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될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수치심을 견뎌낸 아이는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며,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더 완벽한 사람,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른이 된 겁니다.

교실에서 자기를 비웃던 친구들에게, “나 너희들이

무시하던 그때 그 아이가 아냐. 그러니 똑바로 봐.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러나 부질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실수 좀 하면 어떤가요. 존재만으로도 귀한 우리인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드님까지 내어주셨는걸요. 그 따스한 눈빛이 거저 쏟아지고 있는데, 어찌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매여 두려워하며 자신을 움아매는 걸까요.

저는 열두 살 아이가 느꼈을 수치심을 공감해 주고 위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화해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옷 벗김 당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별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며, 온갖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시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타인의 작은 시선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수치심을 묵상합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요. 그 시선이 두려운가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나요.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을 응시하며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봐 주시는 큰 사랑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느님, 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느끼는 수치심을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시선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도록 이끌어주소서.” ☸

박지현 요세피나 sbs 공채 1기 방송 구성작가, 저서 「45일의 기적」 「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그동안 〈작은 길의 일상〉을 연재해 주신 박지현 요세피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국-



## 교구 소식

### 2026년 신양교육원 18기 신입생 모집

의정부본원	오후반	화·목	14시~16:10	신양교육원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남양주본원	저녁반	수·금	19:30~21:40	지금동 성당	한 학기 4과목 12주간 수업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접수 각 100명 선착순 모집 (예약금 5만원)

회비 학기당 40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 [전시] 김소연 크리스티나 캘리그래피 展 - 지극히 작은 드림 (빛으로, 평화로, 노래로)

일시 11/22(토)~12/5(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11/30(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지하1층 소강당

주례 김종민 F.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2/5(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 의정부교구 제152차 ME주말

48시간의 기적, ME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12/5(금) 19시 ~ 7(주일) 17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ujbme.or.kr ME주말분과대표

### 한국천주교회사 강학회 심화반 제2기

주제 신양선조들이 보셨던 성경직해와 기도생활 (특강)

일시 1/17(토) 09:30~17:30

장소 양주순교성지

대상 강학회 기본과정 이수자, 순교자공경회원, 의정부교구 신앙의 유산 아카데미 수료자

인원 80명 (선착순 마감)

회비 3만원 (점심 제공)

접수 12/13(토)까지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교구 홈페이지 <http://ucatholic.or.kr> 참조

###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장소 동두천가톨릭센터,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업무 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소속 단체 지원 업무, 각종 행사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 채용 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1/28(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종말과 강생의 살아 있는 의미  
강사: 김종성 야고보 신부 (의정부교구 1지구장)  
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2127-0032

의정부교구 5지구 하루 피정

일시: 11/24(월) 10시 미사 ~ 16:30  
장소: 화정동 성당 대성전 (화정역 1번 출구 3분)  
강사: 1강-김대우 모세 신부 (수원교구)  
2강-김대영 베드로 신부 (전주교구) / 안수  
치유기도: 두현자 올리아나 교구 회장  
회비: 5천원 (갑배, 물, 커피제공)  
문의: 010-8917-0090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대림, 희망의 빛을 밝히다

일시: 11/29(토), 30(주일) 택일, 14시~17시  
장소: 선한목자예수수녀회 길음동 본원  
내용: 대림환 만들고 함께 기도해요.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4882-9674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한라산: 12/13(토)~15(월),  
12/19(금)~21(주일), 1/10(토)~12(월),  
1/16(금)~18(주일), 1/22(목)~24(토)  
연말연시: 12/31(수)~1/3(토) [한라산]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가정선교회 12월 피정

성가정 영성 피정: 12/3(수) 김경진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12/6(토) 김현우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2/20(토) 김재덕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6:5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7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2차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일시: 12/13(토) 13시 ~ 14(주일) 16시 [1박2일]  
장소: 아론의 집 (의왕시)  
강사: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회비: 12만원 (1박 3식)  
주관: 수찬협 하찬사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문의: 010-6366-4022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1/25 이상기 회장, 12/2 김효임수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33일 봉헌 감사 피정

일시: 12/1(월) 10시~17시 (점심무료제공)  
강사: 장성진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살레시오회 겨울 성소 피정

날짜: 1/23(금)~25(주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중1~35세 미만 건강한 미혼 남성  
접수: 1/10(토)까지  
문의: 010-6221-3520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2/20(금)~21(토), 2차: 2/21(토)~22(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1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5(금)~13(토), 1/8(목)~16(금)  
부부 힐링피정: 12/19(금)~21(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순례: 12/6(토)~8(월), 12/12(금)~14(주일),  
1/9(금)~11(주일), 1/23(금)~25(주일),  
2/6(금)~8(주일), 2/27(금)~3/1(주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출·일몰): 12/31(수)~1/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15(목)~18(주일), 1/30(금)~2/1(주일)  
추차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11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11/27(목) 11시 [매월 넷째 목요일]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문의: 031-941-6238



교육 · 모집 ▶▶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직원 모집

인원: 1명 (계약직 1년, 근무 평정 후 정규직 전환)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PPT) 사용 가능자  
접수: 12/14(주일)까지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 구비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교구 홈페이지-교구소식-모집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대림시기맞이 인문학 특강

일시: 11/29(토), 12/6(토) 19시  
장소: 신원동 성당  
주제: 부성과 좋은 아버지의 실종  
강사: 이동섭 작가

예수고난회 동반자회 8기 모집

자격: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남녀 신자  
접수: 12/7(주일)까지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11/19(수)~28(금)  
전형: 12/13(토) / 문의: 02-705-8668~9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 청년 남자 성소자 모집		010-5195-3217

**202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20(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의정부교구 가톨릭국악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30, 일산 성당

활동: 의정부교구 신년하례미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회 및 미사와 교구 행사

문의: 010-4661-4192 김 안젤라 단장

**안내 · 기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베트남 성모발현 성지순례**

12/8(월) 라방 성모발현성지 (5일, 159만원)

아시아나 항공 이용,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4(목) 나가사키 (4일 169만원) - 구정연휴

3/10(화) 베트남 다낭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7(화)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50만원)

4/14(화) 홍콩, 마카오 (4일, 17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3(화), 1/19(월) 나가사키 (4일, 155만원)

1/16(금), 2/6(금) 중국 상해 (4일, 119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1/21(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13일, 549만원)

2/14(토) 구정특선 - 남인도 성지 (7일, 399만원)

3/11(수) 유럽 성모발현지 (10일, 475만원, KE)

3/11(수) 파티마성모님과 포르투갈 (9일, 409만원)

3/23(월) 폴란드, 체코 (9일, 395만원)

4/7(화), 4/8(수) 이탈리아 일주 (9일, 직항)

4/10(금) 산티아고순례길 150km (13일, 590만원, KE)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28(토) / 회비: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2026년 작은형제회 이탈리아 순례 모집**

제82차: 5/26(화)~6/6(토), 545만원

내용: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칸 성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0(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3(화) 일본 나가사키 (4일, 155만원)

3/17(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 (12일)

4/6(월)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www.catholictravel.co.kr

##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hometax.go.kr)**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회 제출 (양식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발급시기** 2026년 1월 15일경 발급 예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모든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되며,**기부자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본당 사무실에서 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위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 제출 동의서 효력 유지)**

※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신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회 제출)

## 미사 중 침묵

미사 중에 침묵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기도, 성가, 동작과 함께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전례의 의미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전례헌장」 30항; 「미사 경본 총지침」 45항).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부분의 예식서에 예규로 명시할 정도로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식은 독서, 기도, 성가, 동작 등의 끊임없는 연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적 존재이시기에, 그분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현행 미사 예식에는 침묵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식에 따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참회 예식에서는 자신의 죄를 성찰하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또한 본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에서 “기도합시다.” 이후 잠시 침묵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서와 복음 봉독, 강론 이후에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영성체 후 침묵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으로서 그 비중이 더욱 큼니다. 그러므로 영성체 후 침묵 시간에 묵상문을 읽거나 성가 또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없이 완전한 침묵 속에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분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상을 통한 이러한 일치를 위해서는 눈을 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영성체 후 묵상하는 신자들 (위령의 날 미사, 울대리 묘지)

미사 중 침묵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면, 예식 규정에 따라 알맞은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고 형식적으로만 하게 된다면, 예식을 통한 영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리와 정보의 홍수 속에 침묵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전례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영역은 없어지고 그분과의 영적 만남도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미사 중 침묵은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 갖는 적극적인 전례 행위입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1월 23일	주송자	오정화 아녜스
	권우석 라파엘, 정윤정 라파엘라	
11월 30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최성권 야고보, 김민숙 골롬바	

우리들의 정성(11/10 - 11/16)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2일 세실리아: 김영란, 이영자, 변수정, 송벽아

공 지 / 단 체

- 홍유선 임마누엘 신부님 사제 연례 피정  
본당 신부님께서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사제 연례 피정을 떠나십니다. 피정 기간 동안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11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신학생 학비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오늘은 신학생 학비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남성 · 여성 레지오 단원 모집  
남성 회합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여성 회합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본당 남성과 여성 레지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연락 바랍니다.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4건 ..... 530,000원  
주 일 헌 금 ..... 1,097,000원

● 감 사 헌 금

이은상 아오스팅 ..... 200,000원  
이동준 요셉 ..... 200,000원  
한명식 20,000원 박민정 10,000원  
최인용 10,000원 정민영 1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금주의 복음 말씀 -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화답송



(후렴) 기 뻘 - 하 며 주 님 의 집 으 로 가 리 라.